

보건관리자의 역할수행이 유병근로자의 출근으로 인한 업무손실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Workplace Health Manager's Role Performance on Presenteeism in the Workers

정명희, 정혜선¹⁾, 이복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목적: 본 연구는 근로자의 생활습관 교정과 건강관리 수준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역할수행이 유병근로자의 출근으로 인한 업무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자료수집은 고용노동부에 전담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136개 사업장의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도구는 보건관리자 역할수행정도(26문항)와 유병근로자의 출근으로 인한 업무 손실 정도(Stanford presenteeism scale : SPS-6)를 이용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유병근로자의 출근으로 인한 업무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이 남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유병근로자의 출근으로 인한 업무 손실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보건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여성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인 설치 운영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1) 교신저자: 정혜선 hyesun@catholic.ac.k